

폭염 대응 “군민 안전 최우선” 필수 자치법규 마련을 최상위

한득수 임실군수, 무더위쉼터 · 축산농가 등 찾아 현장 중심 폭염대응 상황 점검

한득수 임실군수가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폭염 대응 현장점검에 나서며 군민 안전 최우선 행정에 발맞췄고 나섰다.

한 군수는 지난 3일 임실을 상성 어머니경로당과 오수면 후리경로당, 양계·양돈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폭염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임실군 전역에 폭염경보가 연이어 발효되고, 당분간 35℃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산 피해예방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군수는 먼저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기 정상 가동여부와 시설 운영상황,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섬심하게 살피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안전한 여름나기를 당부했다.

이어 폭염에 취약한 양계·양돈농가를 방문해 축사 내부 온도관리와 환기 시설 운영, 급수관리 등 폭염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한득수 임실군수가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폭염 대응 현장점검에 나서며 군민 안전 최우선 행정에 발맞췄고 나섰다.

군은 폭염 대책기간인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 체계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첫 도입된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기준을 비상대응 체계에 반영해 상황 단계별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분야별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사수차 운영과 폭염 예방물품 지원 등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군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득수 군수는 “폭염 대응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이 먼저 현장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단 한건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전력 인프라 확충 박차

154kV 변전소 신설 강력 건의

최영일 순창군수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전력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54kV 변전소 신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최영일 군수는 지난 3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순창군의 전력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154kV 변전소 신설에 대한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탄소중립 및 그린에너지 정책에 발맞추는 동시에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순창군의 기존 154kV 변전소는 전력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역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전력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연계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54kV 변전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의원총회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8년간 남원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국립의전원 설립과 연계하여, 국립중앙의료원까지 남원으로 이전에 대한민국 공공의료

의 새로운 중심축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인접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국립의전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남원이야말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 건의할 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박희승 국회의원, 양충모 남원시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원팀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면담해 국립의전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의 필요성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98.5%로 전국 기초지자체 1위 달성

순창군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을 기록하며 체계적인 법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법제처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분기 필수 자치법규 현황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4%로 집계됐다. 순창군은 이보다 4.1%포인트 높은 98.5%의 점수를 얻어 경남 통영시와 경기 구리시, 안양시 등 다른 지자체를 제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상위 성적을 거뒀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제정 혹은 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정부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자치 행정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자치법규를 적시에 마련하는 과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순창군은 변화하는 법령에 맞춰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행정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주민 편의를 높

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국 1위 달성 역시 이러한 체계적인 법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군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맞춘 자활기금 관리 조항을 수정하는 등 법적 적합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순창군은 상위법령 불분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반영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신속히 처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필수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는 것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투명페트병 AI무인회수기’ 설치 · 운영

순창군이 주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를 확대하고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투명페트병 AI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도입된 AI 무인회수기는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재활용 가능 여부를 인식·분류한 뒤 압축·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활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1개를 반납할 때마다 10포인트(10원 상당)가 적립되며, 1인당 하루 최대 10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전용 애플

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무인회수기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선택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다만 색상이 있는 페트병이나 오염된 페트병, 통조림 캔 등은 투입이 제한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만 회수 대상이다.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의류와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은 물론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주민들의 자원순환 참여 확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립도서관, 어린이 여름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 프로그램 ‘상상 속 미래가 현실이 되는 피지컬AI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여름 독서교실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임실군립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총 3회에 걸쳐 학년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8월 5일

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학년별 눈높이에 맞춰 서로 다른 첨단 로봇을 활용하는 체험교실로 △1~2학년 대상 ‘코딩 탐정로봇, 로비코’ △3~4학년 대상 ‘AI 반려로봇, 파이보즈’ △5~6학년 대상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카미봇아이’ 등으로 구성되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폭염 대응 총력

남원소방서가 연일 숨 막히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여름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밀착 대응에 나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남원소방서는 가장 기온이 높게 오르는 낮 시간대(폭염 취약시간대)에 맞춰 펌프차량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순찰하고, 농촌 지역이 많은 관내 특성을 고려해 소방대원들은 논밭과 비닐하우스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피서객이 몰리는 주요 계곡과 하천 등지에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은 수변을 순찰하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물놀이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인명구조조비의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등 수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은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준비한 시원한 물을 나눠주며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등 주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따뜻한 이웃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모기 서식지 신고제 운영 참여 당부

남원시보건소는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한 QR코드 모기 서식지 신고제 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시민 및 방문객 등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읍면 지역과 사유지를 제외한 공원, 하수구, 웅덩이 등 모기 유충 및 성충이 밀집된 지역을 발견할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모기 서식지 발견 시 QR코드 스캔 △개인정보 동의 및 민원 내용 작성(GPS 자동 입력) △방제 기동반 확인 및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추후 QR코드를 다시 스캔하면 본인이 신고한 방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